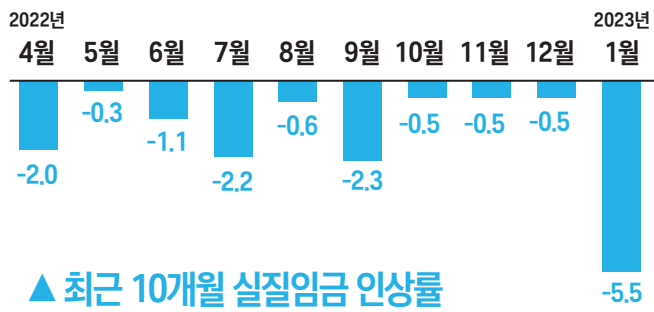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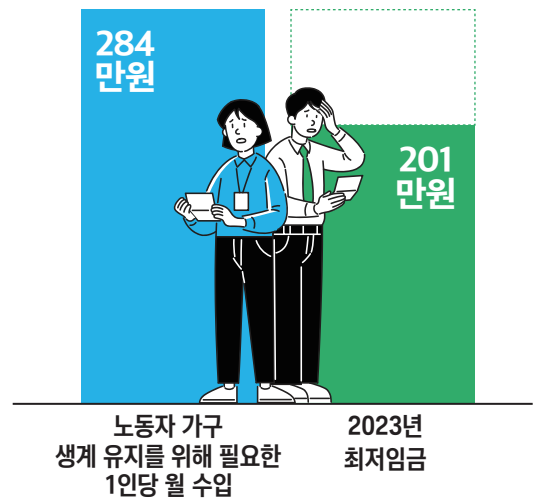
물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작년부터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은 떨어져 왔습니다. 심지어 2023년 1월 실질임금은 -5.5%를 기록했습니다. 가스요금 42.2%, 전기요금 25.8% 인상으로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감당하기도 어려운 물가 속에서 월급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시급 12,000원, 월급 250만원 정도는 받아야 최소한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 한 가구가 한달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 1인이 벌어야 하는 임금은 284만원.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월 201만원 (시급 9,620원)
-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도저히 인간다운 삶의 유지도, 미래도 꿈꿀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월 250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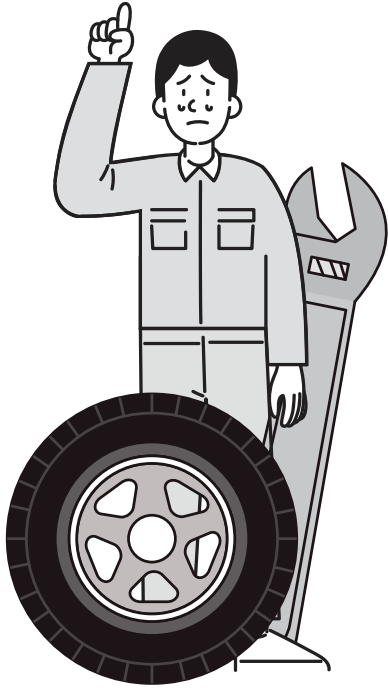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 또 오른다고요? 아닙니다!

- 최저임금이 10% 올랐을 때 물가는 0.2~0.4% 상승 (한국노동연구원, 2015)
- 최저임금 역대 최고 인상률 16.4%를 기록한 2018년 물가상승률은 1.4%
-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 물가폭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지갑이 채워지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올랐는데, 주 69시간까지 노동하라고?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벌라는 것!

주69시간제 폐기하라!



자동차 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A씨의 2023년 1월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기본급 시급은 고작 8000원입니다.

2018년 전까지는 최저임금 항목에 기본급과 수당만 포함되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한창 못미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잔업과 특근을 하지만 노동시간 개약으로 주69시간까지 일하게 되는 순간, 저임금 노동자들은 과로사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노동시간 개약 폐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69시간제 주범 권순원에게 최저임금을 맡길 수 없다

권순원 간사는 최저임금위원 사퇴하라!

최저임금위원회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2020~2021년 2년간 최저임금을 단 370원만 올린 주역이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하며 주69시간제를 비롯한 각종 노동개약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권순원 간사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으면 올해 최저임금마저 경영계의 편에서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권순원 간사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12,000원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월급 250만원.
시민들의 힘으로 만듭시다!
시민 여러분의 최저임금 인상요구 서명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해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할 것입니다.

참여 방법
QR코드로 직접 접속



2023년 체감경기·임금실태 전국 설문조사 (~4월 28일)

올해 물가폭등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임금 실태를 알려주세요!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바나나우유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QR코드로 직접 접속

